

IT 장비/소재

Analyst 이동주 natelee@skc.co.kr / 3773-9026

SK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서프의 연속, 그리고 업황 개선의 윤곽

- 소부장 실적 중간 점검, QoQ 개선과 서프라이즈 시현 업체 다수 목격. 주로 삼성전자 관련 Supply chain
- 2026년과 2027년 투자 모멘텀 부각. 미국 테일러 fab, 국내 P4 투자 재개, P5 기초 공사
- 원익IPS와 코미코 Top-pick

▶ 소부장 2Q25 실적 중간 점검

- 2Q25 실적 공시가 마무리를 앞두고 현재까지 실적이 QoQ 개선은 물론 시장 눈높이를 뛰어넘는 소부장 업체가 다수 목격. 원익IPS,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신성이엔지, 코미코 등이 해당 기업
- 공통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장 업체이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삼성전자 관련 소부장 Supply chain의 2Q25 실적도 대부분 QoQ 개선세가 예상됨. 전반적인 분기 실적 흐름도 1Q25를 저점으로 내년까지 추세적인 우상향 흐름 추정

▶ 향후 모멘텀

- 삼성전자 관련 소부장을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1) 분기 실적 개선이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더불어 2) 2026년과 2027년 업황 개선에 대한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
- 삼성전자 테일러 Fab의 1 공장은 올해 11월 클린룸 구축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연말 부대 장비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공정 장비가 순차적으로 입고될 것으로 추정. 2026년 투자 규모는 30K/m 수준, 총 디자인 캐파는 150-200K/m로 추정
- 국내 P4 투자도 병행. HBM4 대응을 위한 D1c 투자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며 올해 투자 규모는 60K/m, 2026년 70K/m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 NAND 투자도 소규모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V9 30K에 이어 내년 V10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P5의 기초 공사도 내년 상반기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

▶ 애널리스트 의견

- 관련 종목으로는 원익IPS와 코미코를 최선호. 원익IPS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베타가 높은 업체로 2026년 테일러 팹을 통한 외형 기여 2천억원 수준으로 추정. 여기에 P4 DRAM과 NAND 투자의 온기도 반영. 코미코는 본사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와 더불어 파운드리 업체의 미국 투자 전반에 걸친 수혜. 신규 셋업 중인 피닉스 법인은 향후 대만 T사 공급을 타겟
- 이 외에도 테일러 팹, 국내 P4 투자 관련 Supply chain에 대한 바스켓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 HPSP, 파크시스템스, 피에스케이, 테스,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동진쎄미켐, 원익머트리얼즈 주목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